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김주용	학번	
이메일	chukgudory@naver.com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University of Kentucky / IPPMI(비학위) (국가) 미국		
기 간	2021년 1월~12월		[귀국일:2021년12월26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학처장 귀하

2021년 12월 30일

신 청 인 : 김 주 용 (인)

저는 미국 University of Kentucky(UK)에서 제공하는 IPPMI의 비학위과정으로 1년간 다녀왔습니다. 저는 도시의 경쟁력, 대학 프로그램의 구성 및 질, 최근 GMP과정생들의 선택 추이 등을 기준으로 이곳을 선택하였습니다.

미국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생활, 교육과정 등은 이미 많은 자료들이 축적되어 있고,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자료들을 보시고 비교해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과과정은 매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설명회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지원서류 제출, 초기 정착, 생활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 전담 스태프로부터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덧붙여, 생활에 필요한 유용한 팁과 노하우 등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데, 최근 다녀온 선배들로부터 자세한 얘기를 듣는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가면서 정확하고 유창한 영어를 익히기 보다는, 미국이 어떻게 세계 제1의 강대국이 되었는지 배우고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미국에서 느꼈던 인상 깊었던 점들을 간략히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 주민

미국사람들을 흔히 "다원주의적, 합리주의적, 개인주의적이고, 애국심이 높고, 청렴함과 실용주의적이다"라고 말하는데, 가서 경험해보니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 주민들을 보면서 인상 깊었던 점은 미국인의 인사예절과 준법정신입니다.

미국에서의 아침은 늘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모습을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이른 아침 길거리에서 만난 낯선 사람들에게도 밝은 표정으로 인사합니다. 도로 위의 차들은 길을 건너는 보행자들을 멀찍이서 충분히 기다려 줍니다. 마트나 상점을 가보면 대체로 친절하느 느낌을 받습니다. 먼저 밝게 웃으면 인사하는 것은 기본이고 손님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편입니다.

미국인들의 준법정신도 준수한 편입니다. 허용된 주차구역 외에는 좀처럼 주차하는 법이 없습니다. 길거리를 보면 쓰레기도 보기 힘듭니다. 어디를 가든 한 줄로 서서 조급함 없이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적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미국인들이 서로를 신뢰하게 만들고, 이런 신뢰가 사회의 긍정적 에너지로 작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교과서에서 배운 사회적 자본이 아닌가 합니다.

○ 도시

미국의 영토가 넓은 만큼 각 지역도시들도 도시 나름의 다양한 특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도로와 주차장은 넓고 혼잡하지 않아 이용하기에 매우 편리하였습니다. 작은 도시들도 공항시설을 갖추고 있고, 고속도로도 대부분 무료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단독 주택 중심의 주거문화와 스포츠 시설과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의 도시에서 인상 깊었던 점들은 공원과 박물관입니다.

켄터기 렉싱턴만 해도 수십 개의 공원들이 있으며, 대부분 넓고 푸른 잔디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원별로 특색 있는 즐길거리도 많습니다. 다양한 놀이기구, 축구장과 야구장 등 스포츠 시설, 트래킹 코스, 분수, 호수, 휴식공간, 심지어 패들보트를 탈 수 있는 곳도 있고, 애완견을 위한 도그공원도 있습니다. 이 공원에는 뛰어 노는 아이들,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가족들, 운동하는 사람들로 항상 북적 거립니다.

그리고, 미국의 도시에는 박물관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국의 역사가 짧지만, 외세의 침략이 없어, 이것저것 사소한 것들까지 잘 보존하고 기록해 놓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항공우주박물관, 자연사박물관 처럼 대규모 박물관, 사이언스 박물관처럼 아이들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교육박물관, 일상의 생활을 역사로 기록한 지역 역사박물관 등 종류와 규모도 다양합니다. 특히, 주말과 휴일에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박물관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설명해 주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학습도 중요하지만, 이런 생생한 현장에 방문하여 직접 눈으로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학습활동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원과 박물관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콘텐츠를 확충하려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 제도

미국은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권력분립에 기반한 국가권력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특징은 코비드 19 대응과정에서 잘 나타납니다.

첫째,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강제성을 띤 정책들만이 실행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정치문화를 보여줍니다.

둘째, 중앙정부의 전국적인 컨트롤과 더불어 주정부의 자체적 판단에 따른 별도의 대응방안이 실행됩니다. 이것은 권력분립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셋째, 미국 국민 중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현 민주당 정권에서 백신을 권장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양당중심의 정치구조 속에서의 교착상태를 보여줍니다.

상대적으로 평가할 때, 한국의 제도가 신속함을 중시한다면, 미국은 신중함을 중시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행정

미국의 행정에 대해 대체로 느리고 부정확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작은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하고,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오기도 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복불복” 상황이 발생하여, 현지 사정을 잘 모르는 유학생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민간 행정과 관련해 동일 서비스에 다른 요금을 부과하거나 다른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고, 공공 행정과 관련해, 담당자별로 다른 종류의 서류를 발급하거나, 같은 내용의 신청에 대해 인용 또는 기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유학생들간 서로 소통하고, 비교해보면서 생활해 나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시장경제

미국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서비스 수준에 따라 가격을 차별화하여 다양한 수요에 대응합니다. 한국은 소상공인 중심으로 다양한 한 상점들이 있는 반면에, 미국은 대형마트나 유명 브랜드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가격 및 서비스 정책들이 시행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환불정책과 가격조정정책 입니다. 환불은 단순 변심 등 어떤 이유에서든지 허용됩니다. 환불을 원할 때는 환불이유를 물어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심지어 포장을 뜯고, 며칠 사용한 경우라도 큰 어려움 없이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특징적인 것을 가격조정정책 입니다. 만약 A라는 제품을 100불에 샀는데, 그 다음주에 그 A제품이 10% 할인되어 90불에 판매된다면, 소비자는 가격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가 100불에 제품을 샀다는 내용을 영수증 등으로 증명만 하면, 이후 할인된 금액 10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소비자가 유통기업을 신뢰하게 만들어 주고, 거래를 활성화시켜, 시장경제를 원활히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 교육

미국 초등학생들은 비교적 일찍 학교에 갑니다. 제가 있던 곳의 초등학교는 아침 7시 45분에 시작했습니다. 보통 부모가 자동차로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기 때문에, 학교 인프라도 자동차가 학교 건물 정문 바로 앞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인상 깊었던 것은 선생님과 학부모간의 소통입니다. 선생님과 학부모는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합니다. 매일 소통노트와 이메일을 통해 그날 있었던 일들과 학생이 해야 할 일들을 알려줍니다. 선생님과 학부모간 일대일 미팅을 통해 학생의 학교생활과 학업성적 등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나눕니다. 급한 전달 사항들은 메신저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학교측에서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만 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와 선생님은 교육의 한 축으로서 부모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교육을 위해 집에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안내해줍니다.

한국의 교육시스템은 공정이라는 가치를 위해, 학교와 가정을 차단하는 시스템인 반면, 미국은 서로 협업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 환경

미국은 광대한 영토만큼 다양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부는 전반적으로 온화한 기후, 중서부는 비교적 4계절이 뚜렷한 기후, 남부는 덥고 겨울이 거의 없는 온화한 기후, 북동부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기후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켄터키주는 공기가 너무 상쾌하고, 하늘이 맑았으며, 심지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까지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일년 내내 외부세차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국립공원이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가볼 만한 국립공원을 다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랜드캐니언, 옐로스톤, 로키마운틴, 글레이셔, 요세미티, 자이언, 브라이스 캐년, 데스밸리, 아치스 등 웅장함과 뚜렷한 특색을 갖춘 수많은 국립공원들이 있습니다.

가구당 80불하는 국립공원 애뉴얼 패스를 구입하면, 연중 어느 국립공원이든 입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니어 레인저"라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린이들이 과제를 수행하면, 주니어 레인저로 임명하고, 증표로 배지를 증정합니다. 이 배지는 어린이라면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명예로운 기념품입니다.

인상 깊었던 점은 미국은 어느 국립공원이든 자동차로 대부분의 정상과 주요 뷰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립공원 곳곳으로 자동차 도로와 주차시설이 잘 되어 있고, 화장실, 안내시설 등 편의시설도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와 노약자가 있는 가정이라도 국립공원을 쉽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자연과의 차단을 통해 환경을 보존하려는 반면, 미국은 환경에 쉽게 접근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이용하게 하는 교육과 스스로 느끼는 보존의식을 통해 환경을 살리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 보면, 우물안 개구리에서 벗어나,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해외에 나가시기 전에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보고 배울 것인지 미리 생각해두신다면, 그만큼 얻는 것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성선애	학번	
이메일	Sasung10@naver.com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켄터키 주립대 국제공공정책대학원 (국가) 미국 (IPPMI) / 비학위
기 간	2020.12.29 – 2021.12.17 [귀국일: 2021년12월27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및 지리적 위치 관련)

켄터키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사계절이 뚜렷하다. 다만, 우리나라 겨울보다는 덜 춥고, 우리나라 여름보다는 덜 더운 것 같다. 공기는 너무 맑고 좋다. 일주일에 한번은 비가 오는 것 같다. 또한 켄터키는 미국 중동부에 위치해 있어서 차로 워싱턴, 뉴욕, 플로리다와 같은 미동부지역을 여행하기에는 적당한 위치라고 생각한다.

(초기 생활 관련)

2020년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 때문에 미국 대학에 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많았다. 그렇지만 생각했던 것 보다는 미국 생활에 있어서는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은 많지 않았다.

미국에서의 생활 관련하여, 켄터키 대학 IPPMI에서 지원해주는 초기 정착 서비스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다행히 아파트와 차는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분의 것을 take over 받았기 때문에 바로 생활이 가능하였다.

(자녀학교 관련)

한국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렉싱턴에 위치한 버몬트아파트)는 초등학교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우리 애들은 고등학생이라서 차로 5분 정도 위치한 고등학교로 배정받았다. 애들 학교는 2021년 4월까지 온라인 수업을 받다가 5월달부터는 정상적으로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았다. 애들은 온라인 수업보다 직접 학교가 가서 수업 받는 것이 더 좋았다고 한다.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켄터키대학 행정대학원 소속 IPPMI(국제공공정책대학원) 교육과정은 ESL 수업, 미국 정치, 행정 등과 관련된 수업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다. 통상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수업과 일주일에 2번 정도의 오후수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비학위과정의 경우에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 있는 교육보다는 주로 생활영어와 미국의 문화, 정치, 행정, 공공 시스템의 일반적인 내용에 관한 교육을 주로 다루고 있다. 동 과정에는 인턴십 프로그램과 공공기관 방문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각종 계획이 취소되거나 축소되어 진행되었다.

3.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한국 학생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렉싱턴 위치 버몬트 아파트)는 2-3층 높이의 조금 오래된 목조 아파트이다. 그리고 전임자로부터 아파트와 생활가전 용품을 받을 경우에는 대체로 리모델링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카펫을 사용하기 때문에 청소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 그리고 목조아파트라서 층간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간혹 아래층 거주자와 소음 문제를 다룰 여지가 있음.

버몬트 아파트는 입주민을 위한 소소한 행사를 하고 있어서 좋았다. 미국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짐.

켄터키에는 대형 한국마트가 없다. 그래서 한국 식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작은 규모의 한국마트를 주로 이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 선택의 폭이 많지 않다. 조금 불편하기는 하나, 20-30분 이내에 미국의 대형 마트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 식재료 구입에 불편함이 없다.

4.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운전면허 취득)

2021년도에도 코로나로 인한 여파가 공공업무에 있어서는 여전히 존재했다. 공공기관 방문의 경우에는 대부분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전화예약의 경우에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발생하곤 함.

켄터키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하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는다면 굳이 켄터키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됨. 하지만 미국의 운전면허 취득 시스템이 궁금하다면 운전면허증 취득을 추천함.

운전면허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은 어렵지 않다. 필기시험은 한국어로 시험을 볼 수 있고, 실기시험 코스도 짧고 복잡하지 않다.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1번에 통과가 가능하다. 다만, 운전면허시험 신청을 위해서는 사회보장번호, 여권, 비자, Ds-2019, 학교에서 발급해 주는 서류, 주소지 확인용 서류 등이 필요하다. 이 중에서 사회보장번호 발급의 경우 발급기관(SSA)의 담당자에 따라서 사회보장번호가 발급 여부, 발급 기간 등이 상이하다. 사회보장번호 발급은 온라인으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 방문 전화예약의 어려움과 처리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어려웠음.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회보장번호 발급 여부가 왜 다른 지 알기 어려움.

(자동차보험 청구 및 처리 관련)

자동차 교통사고는 아니지만, 자동차 에어컨 튜브에 문제가 발생하여 물이 밖으

로 배출되지 못하고 차의 카펫 아래로 물이 들어간 것이다. 자동차 고장에 대한 수리비용이 정말 많이 나왔다. 수리비용이 보험처리가 되는지 보험회사에 요청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차도 렌트를 했다. 보험회사 직원이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 직원은 클레임에 대한 회답을 해주지 않았다. 거의 3주가 다 되어가는데 답변이 오지 않았다. 통화도 잘 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차 수리비용은 보험처리가 되지 않았다. 문제는 자동차 수리 기간에 사용한 렌터카 비용 문제가 처리되지 못하였음. 미국은 병원비와 자동차보험 청구비용 등이 바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5.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미국 1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음.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많은 경험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함께 공부한 한국 학생분들이 미국 생활을 적응하고 즐길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음.

6.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자동차 여행을 하면서 속도위반 단속을 많이 목격하기도 하고, 실제 걸리기도 하였음. 경찰 단속에 걸린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보여주는 것을 추천함. 두 번 경찰 단속에 걸렸는데 국제운전면허증을 보여준 경우에는 주의만 받았는데, 현지 운전면허증을 보여준 경우에는 벌금을 받은 경험이 있음. 잘은 모르지만, 미국 경찰도 외국인에게 조금 관대한 것은 아닐까 생각됨.

7.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코로나 때문에 미국에 갈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 미국 생활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임.

교학처장 귀하

2021년 12월 29일

신 청 인 : _____ 성 선 애 _____ (인)

